

몇몇 웹 소설을 읽고

최인호

한겨레말글연구소 연구위원

말은 들어야 맛있고 글은 읽어야 맛이다.

요즘 들어 짬 나는 대로 소설을 좀 읽었다. 종이책이 아닌 인터넷 소설 곧 웹 소설들이다. 10대, 20대에 《현대문학》, 《문학사상》, 《사상계》나 몇몇 종합지들, 전집불이에서 소설을 읽은 적이 있지만, 그 뒤로 소설과는 답을 쌓고 살았으니 설레는 바도 있었다. 막장 드라마라 일컫는 방송극에도 재미를 붙일 수 있듯 인터넷 소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누리그물에 자기 방을 꾸려 글을 내보이는 작가도 있다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가 보지 못했다. 길라잡이 네이버 문간을 들어서니 곧장 웹 소설을 불러낼 수 있었다.

이것저것 구경 삼아 돌아보니, 잘 읽히면서 제법 재미도 느낄 수 있었고, 잘 나아가지 않는 것도 있었다. 대체로 며칠 사이 번갈아 가며 연재하는데, 종이책과 다른 점은 지면 제한이 없어 그림을 넣어 가며 넉넉하게 펼친다는 점, 지난 글도 되돌아가 읽을 수 있다는 점, 글자도 키워서 책상에서도, 손전화로도 읽을 수 있다는 점들이 편했다. 내가 재미있게 읽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여서 연재 횟수를 길게 가져갔으며, 종이책으로 출판되기

도 하는 모양이다.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무협 소설이었다. 무협이라 해도 오래전 김광주 선생이 신문에 연재하던 <비호>와 몇몇 번역 소설을 읽은 게 전부다. 저 웹 소설 동네에는 무협만 열 가지 넘게 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 밖에 공상 과학(에스에프 판타지), 애정(로맨스), 추리(미스터리), 퓨전, 라이트 노벨로 갈래를 나눠 보였다. 저마다 입을거리를 가려서 보라는 뜻이겠다.

한편으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나 현실을 제대로 다룬 글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소재나 주제가 너무 무거워 독자를 끌거나 재미를 불러일으킬 만큼 가벼운 입을거리로 녹여낼 여유가 없는 까닭이겠다. 하지만 애기들의 무대나 배경에서는 나라 안팎을 아우르는 글이 많았다. 요즘 유행하는 말버릇이나 말투들을 끼워 넣을 만큼 현실과 세태를 담으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그러니 저마다 현실을 다른 모습으로 흩뜨리고 모으고 빚어내는 것으로 여겨야겠다.

무협 소설에서는, 그 세계에서 노는 말들이 좀 낫설고, 공상 또는 동양판 판타지임에도 그 배경과 등장인물이 거의 중국 쪽이라는 점, 닭은꼴들이 많다는 점이 거슬린다. 하지만, 지난 세기 육칠십 년대 번안 소설의 티를 많이 벗어나 갈래가 다양해졌으며, 문장이 쉽고 우리말다워졌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배경이나 인물, 몇몇 용어들을 빼고는 ‘국산 무협’으로 꽤 자리 잡았다고나 할까.

소설을 읽고자 하는 마음 다른 한쪽에는, 우리말의 쓰임새가 어떤지 하는 궁금증이 도사리고 있었다. 웹 소설은 그런 점에서 맞갖았다. 하루에 스무 쪽지가 넘는 갖가지 소설을 내놓는데, 길어도 만만찮다. 재미로 읽다 빠져서 말의 쓰임을 놓치는 때도 적잖았다.

쉽고 자연스럽게 읽히는 글을 쓰기는 쉽지 않다. 웹에서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게 반가웠고, 작품을 골고루 갖춘 저자를 이루고 있는 게 더욱 놀라웠다.

여기서 소설의 뒤편이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 헛소리가 될 터이다. 다만, 한 독자로서 글을 읽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표현들을 모아 보는 것으로 그칠까 한다.

글은 술술 읽혀야 맛이다. 읽는 이가 생각을 잇고 눈길을 쫓게 하는 짜임, 깔끔한 대화, 간략한 주변 설명들이면 더할 나위가 없다. 내가 재미있게 읽은 글들은 대체로 그러했다.

잘 읽히는 글도 가다가 눈을 머물거리게 할 때가 있다. 몸속의 피처럼 잘 흐르다가 좁은 곳을 만나거나 무엇에 가로막히는 듯한 느낌 말이다. 거기엔 대체로 이음새가 버거거리거나 느슨한 월, 낫익은 판박이 표현, 어울리지 않는 낱말들이 있었다.

때로는, 눈길을 되돌려 다시 읽고 싶은 곳도 있고, 여운을 주면서 생각을 좀 더 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데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마냥 그러길 바랄 일은 아닐 터이다.

마침 이 꼭지의 문패 이름이 ‘국어 산책’이라 했으니, 일일이 갈래를 나누지 않고 문제가 될 만한 문장이나 표현들을 보이는 것으로 그친다.

1

월조각이 덜 갖추어진 곳이 눈에 띄었다.

무엇이 사실이거나 틀림이 없다고 여길 때 ‘확실하다, 분명하다, 틀림없다’ 따위를 쓴다. 미루어 짐작하는 말투이지만 사실은 확신하고 단정하는 식이다. 어찌말로 바꾸어 쓰면 별 문제가 없으나 이를 말끝의 풀이말로 쓸 때 문제가 생긴다.

아래 보기에서 화살표 다음은 손질한 월을 보인 것이다. 달리 손질할 수도 있으나 우선은 본디틀을 살렸다.

[보기 1]

- 그녀의 발아래 죽은 경비병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기계의 희생양이 된 *자들이 분명했다*(《이지러진 밤의 신》) ⇒ ~희생양이 된 자들이 분명했다. / ~희생양이 된 자들이었다.
- 우리 사귀는 거, 그냥 확 사람들에게 말해 버릴까요? *협박이 틀림없었다*(《위험한 신입 사원》) ⇒ ~틀림없이 협박이었다. / ~협박이었다.
- 호위들 숫자도 단출한 것이 비밀리에 *나선 것이 틀림없었다*(《패왕 연가》) ⇒ ~나선 것임이 분명했다. 호위들도 몇 안 되는 걸 보니 틀림없이 비밀리에 나선 것이었다.
- 옷차림으로 보건대 그녀가 좀 전에 죽기 살기로 대걸레질을 했던 *사람이 분명했다*(《이사님의 취미 생활》) ⇒ 옷차림으로 보건대 분명히 그녀가 좀 전에 죽기 살기로 대걸레질을 했던 사람이었다. / ~대걸레질을 했던 사람임이 분명했다.
-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갈라타족의 행태는 *계획적 반란이 확실했다*(《포르트무스》) ⇒ ~갈라타족의 행태는 계획된 반란이었다. / ~갈라타족의 행태는 계획적 반란임이 확실했다.
- 이런 사정으로 보건대, 혁련지를 협박하기 위해 태원계에서 사주한 *무뢰배들의 장난이 틀림없었다*(《무위도》) ⇒ ~혁련지를 협박하려고 태원계에서 시킨(벌인) 무뢰배들의 장난임이 틀림없었다.
- 무공에 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에게 무공을 잃는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이 분명했다*(《마왕》) ⇒ ~상실임이 틀림없었다.
- 아무래도 비연의 말은 그녀 자신의 취향이나 신조가 지나치게 *반영된 것이 틀림없었다*(《낙향문사전》) ⇒ ~지나치게 반영된 것임이 분명했다. / ~비연의 말에는 자신의 취향이나 신조가 지나치게 뻔 듯했다.

- 그 모습을 보며 손빈은 일이 쉽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낙향문사전》)
⇒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 이런 장비를 많이 다뤄 본 전문가가 틀림없습니다(《차원과 균열》)
⇒ ~전문가임이 틀림없습니다. / ~전문가임이 분명합니다. / 틀림없이
이런 장비를 많이 다뤄 본 사람입니다.

이런 말버릇은 소설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나 다른 글에서도 흔히 보이는 것들이다. 꽤 굳어진 말버릇인데도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무엇이 (분명히) 무엇이다’로 끝내야 할 것을 ‘무엇이 무엇이다+분명하다’로 바꾼 월인 셈이다. ‘무엇이다’의 ‘이다’를 살려야 아귀가 맞는다. ‘이다’를 이름꼴 ‘임’으로 바꾸어서 ‘무엇임이’로 잡아 준 뒤 여기에 ‘분명하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따위 판단하는 말을 두어야 열개를 제대로 갖춘 월이 된다.

[보기 1] 가운데 별로 어색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입말로는 흔히 쓰기도 한다. 자주 보고 쓰다 보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된다. 그러나 글로 써서 눈으로 읽으면 빈틈이 드러난다. 잘못 굳어진 것이 많을수록 글이 험클어지고 읽기가 더더진다. 그런 것을 감내할 만큼 여유를 부릴 까닭이 있을까? 그러니 사전에서도 이런 예문을 보이는 건 조심해야 할 성싶다.

<표대>: 그녀는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 목소리로 보아 밖에 있는 사람은 여자가 틀림없다. / 감방 동료라고 속이던 청년은 정보대 끝나풀이 틀림없었다.

들은말, 특히 영어 바람이 우리에게 끼치는 바가 적잖다. 짧게 잡아도 광복 뒤 일흔한 해, 세 세대를 지났다. 사람도 말도 온전히 버티기 버거운 세월이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한문투에다 일본말 투가 곁친다. 소설에서도 들은말 투 흔적들이 적잖이 눈에 띈다. 온전히 녹아든 것이 아니어서 쉽게 눈에 걸린다. 이미 우리에게 익은 말처럼 자주 쓰는데, 아직 손질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몇 가지 보기를 들어 보자.

[보기 2]

- 하지만 이 힘은 *겸손으로 감출 성질의 것이* 아니야. / 그것은 단지 전장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폐왕 연가》)
- 세상 어디에도 *이런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었다.(《내 나무》)
- 웃고는 있지만 이 미소는 *짜증 났을 때 짓는 종류의 것이다*.(《마왕》)
- 레아와 내가 뿜어내는 위대한 마나의 향기는 인간들이 *선불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포트무스》)
- 그런 사람의 배신은 *쉬이 받아들일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흑광 검선》)
- 이는 *고수와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종류의 것이었다*. (《세상 끝에서 온 무사》)

옳긴 글, 뒤친 글이라면 그러려니, 웃고 넘길 수도 있겠다. ‘성질의 것’, ‘종류의 것’으로 묶어서 말하는 버릇이 어디서 왔는지 알 만하다. 굳이 ‘것’을 다시 꾸밀 필요가 없으니 이는 군더더기다.

[보기 3]

- 사태의 심각성은 어느새 잊고 은서가 구두를 벗어서 보더니 짜증을 냈다.(《꽤다 깨 커플》)
- 혹시 상황의 중대성을 이해 못 했나 싶어 시한이 말을 이었다.(《이계 진입 리로디드》)
- 그제야 지켜보던 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패왕 연가》)

‘마뜩잖다. 심상찮다, 예사롭다’거나 ‘예사롭지 않다’처럼 흔히 쓰던 말로도 넉넉할 터인데, 이런 말로 된 보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보기 4]

- 불안한 표정의 설봉이 어느새 다가와 독촉하듯 상념을 깨우자 유성기는 살짝 눈을 찌푸렸다.(《친마류혼기》)
- 우람한 체격의 중년인이 뭐라고 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장포라는 이름의 장한이 끼어들었다. / 유화가 눈을 뜨자 진지한 얼굴의 천소호가 보였다.(《흑광검선》)
- 오십이 훨씬 넘은 나이의 그녀였지만 하얗단은 무척이나 단아해 보이는 외모의 소유자였다. 점잖아 보이는 옷차림의 하얗단까지 눈으로 확인한 천위극이 슬그머니 입을 열었다.(《마왕》)
- 노균과 손빈, 그리고 서린이 아이들과 감동의 재회를 하고, 사수연과 화사도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흰 수염을 기른 깡마른 얼굴의 노인, 서방의 네르구이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 모닥불 곁에 서 있던 우락부락한 눈매의 장균, 북방의 알탄은 네르구이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넸다.(《낙향문사전》)
- 긴 다리의 그는 트레이닝복조차도 완벽한 핏으로 소화해 내고 있었다.(《야한 남자》)

- 그들 뒤로 세, 네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엘리베이터로 들어섰다.
(《소년 남자》)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는 있다. 다만 우리말답지 않다는 얘기가. 매김말이 길어져도 큰 상관은 없지만, 토 '의'에 기댄 표현들이 너무 많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바로잡아 주어야 할 표현들이다.

[보기 5]

- 그 기세는 전투 의지를 불태우던 우크크 전사들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다.(《포트무스》)
- 그랬기에 야율무제에게 악중패라는 기회는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사자 왕》)
- 서 실장은 충분히 당황스럽다 / 태생이 정숙하게 생긴 외모. 그것에 더해진 고급스러움은 한 걸음 한 걸음 공간을 압도하기 충분했다.
(《그 남자의 정원》)
- “수고했다.” 짧은 말이지만 전대 패검 혁련위에게겐 충분히 긴 대답이었다.(《낙향문사전》)

넘친다거나 그러고도 남는다는 말을 이렇게 한다. 굳이 ‘충분한’이란 말이 없어도 충분한 것도 있다.

[보기 6]

- 상대의 공격을 얼마나 완벽히 피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니 큰 회피 동작이나 굉장히 섬세한 거리 조절을 필요로 한다.(《이계 진인 리로디드》)

- 이해했어요. 왜 제가 시한을 *필요로 해야 하는지*. / 근데 왜 시한은 *저를 필요로 하죠?*(《이계 진입 리로디드》)
- 놈도 검을 든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어요* 피가 흐르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 *부상을 입었지만* 기분이 조금도 나쁘지 않았다. / 천마신교는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 동맹 세력들과의 우호 유지를 위해 수시로 거액을 들여야 하는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백 명의 수하를 잃은 것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세상 끝에서 온 무사》)
-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지만 하루 종일 긴장감을 유지하다 보니 온몸이 축 처졌다.(《강호 제일 해결사》)

무엇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지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뭐가. 또 ‘다치고, 피해를 봤다’로 된 보기를 찾기가 어렵다. 설마 학교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보기 7]

- 원소의 본진이 *위치한* 고당현과 관도현의 중간쯤에 *위치한* 요성현이 있다. / 지도를 확인하던 혁련휘는 가후가 죽기 직전에 구입한 *장왕의 위치*가 천주라는 마을과도 제법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것도 숲 안에 *위치한 곳*이라는 것도.(《마왕 호접몽전》)
- 서평의 안내를 받으며 한쪽에 *위치한* 탁자로 향한 월령이 이내 자리에 걸터앉았다.(《마왕》)
- 차 회장의 별장은 산을 조금 올라간 곳에 *위치해 있었다*.(《위험한 신입 사원》)
- 변화가에 *위치한* 노라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 12층에 *위치한* 기획실로 가기 위해서였다. / 11층엔 영업 부서가 *위치하고 있었다*.

/ 1층 홀에 *위치한* 프랑스식 창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바깥 정원으로
나가서 구경할 수 있는 구조였다.(《소년 남자》)

재미나는 것은 “차 회장의 별장은 산을 조금 올라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처럼 바로 뒤에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위치한’이란 말을 쓰는지 알
수 없다. ‘자리’나 ‘자리 잡은, 자리 잡고’란 말은 찾아 보기 어렵다.

[보기 8]

- 크게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지지 *기반들을 위해서라도* 혁련휘는 답을
찾아야만 했다.(《마왕》)
- 환야에게서 배우기 시작한 천살강기라는 무공을 완벽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한참은 남았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강해져 감을 느끼고 있다.
(《마왕》)
-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증거를 남기는 거죠. 확실한 증거.
(《고결한 그대》)

풀이말을 ‘기’ 이음꼴로 바꾸고 여기에 ‘위하다’를 붙여 쓴 월을 자주
본다. 이는 풀이말을 이음꼴로 바꾸고 ‘위하다’까지 가져올 것이 아니라
아예 애초의 풀이씨 끝바꿈을 ‘-려고’나 ‘-고자’로 바꾸면 거주장스럽게
‘위하다’를 끌어다 쓸 필요가 없게 된다. ‘위하다’는 글을 이롭게 하기보다
해롭게 할 때가 많다.

[보기 9]

- 그쪽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 / 한 달이다. 그 안에 생각을 정리하고
떠날 마음이 있다면 나를 찾아라. 그 이후라면 네가 오든 오지 않든
나는 이미 이곳을 *떠나 있을 것이다*.(《수라왕》)

- 사실은 유림 선배가 싫다는데 제가 막무가내로 *쫓아다니고 있는 중이* 거든요(《위험한 신입 사원》)
- 이미 제 마음은 승현에게 다 *들켜 있는 게 뻔했다*. 입으로 하는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걸, 승현은 벌써 눈치 채고 있었다.(《위험한 신입 사원》)
- 무결은 막 공방에 도착하여 공방 앞 갓길에 차를 세워 놓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소년 남자》)

역시 끝바꿈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기들이다. 그러다 보니 겹친 표현이 거듭된다. ‘기다리는, 쫓아다니는, 파고들, 들킨, 떠났을, 기다리던’들로 손질할 일이다.

이 밖에도 눈이 머물거리게 하는 보기들로 두드러진 것을 하나씩만 보인다.

[보기 10]

- 들은 적은 없소.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장씨 세가 호위 무사》)
- 그에게서 겨울의 추위보다 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마왕 호접몽전》)
- 저들의 *말에 따르면* 인육은 금단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수단이라 했지요 / 핏기가 맺힌 눈이 얇은 칼과 함께 남희연을 향했다.(《무림 체포 전담조》)

3

낮선 말들도 제법 눈에 띄었다.

[보기 11]

- 박 팀장이 *조곤하게* 다독였다.(《지극히 평범한》)
- 턱을 올리며 *도도를* 떨었다. 배시시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삼키며.
(《지극히 평범한》)
- 그녀가 가장 *애정하는* 소설은 베스트리그의 《나를 사랑한 주인님》이었다. / 그녀가 *애정하는* 산책 코스는 집에서 가까운 남산이었다.
(《나를 사랑한 대륙남》)
- 자주 나한테 *다정하지* 말아요.(《그 남자의 사생활》)
- 도혁이 씻고 나왔을 때 은채는 이 집에서 *가장 애정하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보스의 노골적 취향》)
- 입주 가장 *교사*라는 것이 답답하긴 하지만 보수만 봐서는 태원의 말대로 *꿀직장*이었다. / 그 로봇 말투까지, 어쩔 이리도 *소꿉녀스러운* 여성이 있는지.(《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거들 만한 말보다 잘못 쓰는 말이 많다. 굳이 거둔다면 ‘도도’나 ‘꿀직장’ 정도랄까? ‘소꿉녀’는 아마도 줄인 말인 듯하다.

날말에서는, 영어나 일본말에서 들어온 것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었다. 가짓수가 많아 일일이 들추지 않는다.

4

그럼에도, 웹 소설을 읽으며 드는 느낌은 한마디로 ‘안심’이다. 우리말의 오늘을 두고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겠다는 말이다. 걱정한 것처럼 우리말이 그렇게 상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지난 세기의 글들보다 많이 가지런해지고 발랄해져서 오히려 느긋함을 느꼈다면 이는 나만의 생각일까?

그런 중에도 몇 가지 우리 일상어에 스며든 외래말 투가 상당수 보여

이를 모아 보았다. 이 정도는 손질하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겠고, 씻어 낼 수 있을 성싶다.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머잖아 손대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잘 쓴 글도 겉으로 내보일 때는 손질이 제법 뒤따라야 함을, 손질하는 품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여, 갈피가 어지러우나마 굳이 들추는 바이다.

국립국어원 소식

